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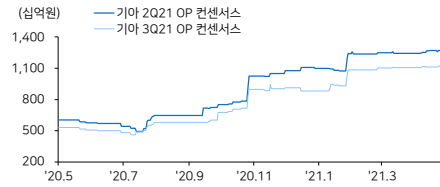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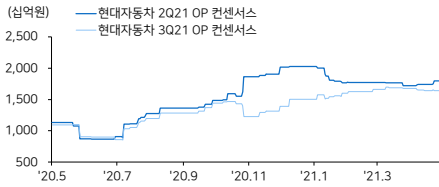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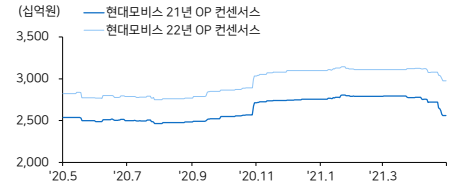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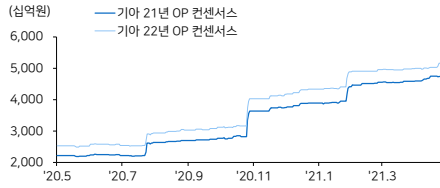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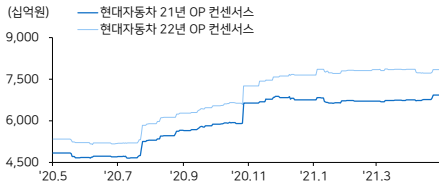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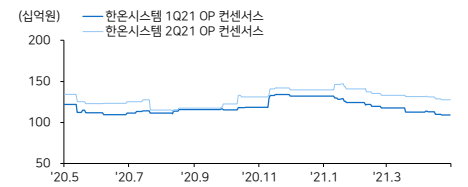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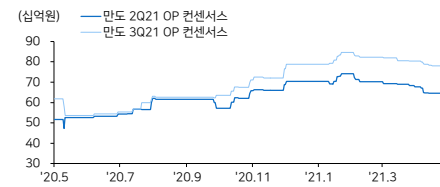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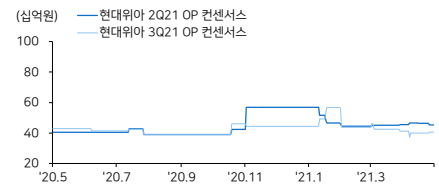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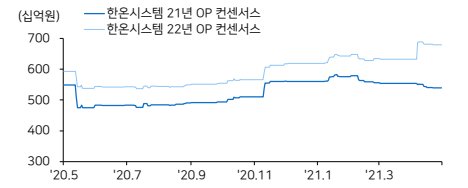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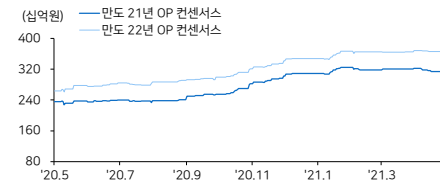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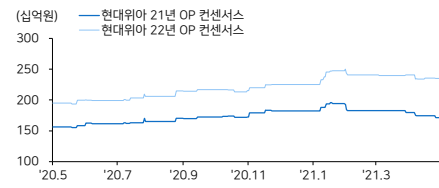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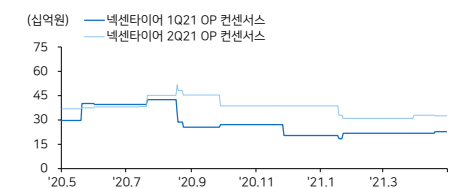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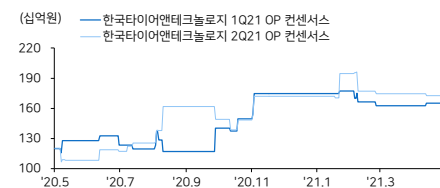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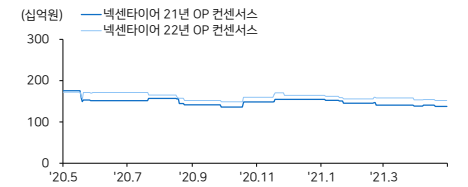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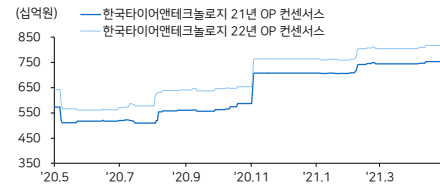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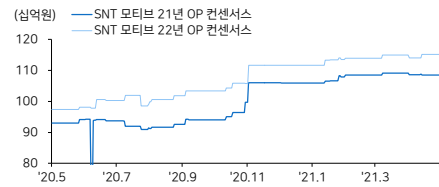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대한항공과 '플라이카' 띄운다 (서울경제)

현대차그룹이 대한항공의 무인기 시스템 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UAM 개발을 위해 대한항공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항공이 보유한 기술 중 킬로미터는 현대차가 구상 중인 UAM 기체 개발에 핵심 요소로 꼽힌다. <https://bit.ly/3nTazW9>

### 기아, EV6 수요 잡아라... '아이오닉' '볼트' 도입 (THE GURU)

기아가 영국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아차지(Kia Charge)'에 고전압 충전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초고속 충전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EV6'를 비롯해 향후 출시할 E-GMP 기반 신차에 대용량 배터리 탑재될 것을 고려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https://bit.ly/3h5XmrN>

### 만도, 유니티와 VR 기반 자율주행 개발 환경 구축 MOU (연합뉴스)

만도가 실시간 3D 개발 플랫폼 선도 기업 유니티와 'VR 기반 자율주행 개발 환경 구축' MOU를 맺었다. 양사는 기존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라이다, 카메라, 센서 등 자율주행 인식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한 VR 검증 개발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https://bit.ly/3tqWrom>

### 메리 바라 GM CEO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시판' (디지털투데이)

GM CEO 메리 바라는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GM의 향후 10년 계획을 언급하며 자회사 '크루즈'의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량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루즈는 '23년 두바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https://bit.ly/3eXvzHe>

### 벌써 2만대...제네시스 G80, 전년보다 2배 많이 팔렸다 (매일경제)

올해 4월 제네시스 국내판매는 yoy +65% 증가한 14,413대로, 특히 G80과 G70 모델을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의 내수 실적을 견인했다. 또한 제네시스는 오는 6월, 독일·영국·스위스를 시작으로 유럽 판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https://bit.ly/3nUuggd>

### 기아, 캐나다 고속질주...4월 역대 최고 판매 달성 (THE GURU)

기아 캐나다법인은 지난달 총 8040대를 판매하며 역대 4월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호실적이 동반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 SUV 셀토스와 포르테, 스포티지가 판매실적을 견인했으며, 공식인증 중고차인 CPO 판매도 크게 상승했다. <https://bit.ly/3oUc9FW>

### 판매량보다 수익성... 미래차 시대, 후 업계 전략 바뀐다 (조선비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실적을 늘리는 기존 전략을 폐기하는 대신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최대한 많은 투자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 중. 미래차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점유율 확대를 위한 수익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https://bit.ly/3f02cEf>

### Tesla's rumored sale of regulatory credits to VW to last '2~3 years' (Teslarati)

VW 디스 CEO에 따르면, Tesla와 VW의 탄소배출 크레딧 거래가 2~3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규제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Tesla의 크레딧 판매는 VW가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배출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https://bit.ly/3f02cEf>

##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